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관계’의 문제*

Problems of 'Relationship' in Juvenile Novels

정 미 진, 이 영 석**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Jeong mi-jin, Yi yeong-seok**

Gyeongsang Univ., Gyeongsang Univ.**

요약

이 글은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청소년소설에서 사회적 관계가 재현되는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소설에서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사회적 관계는 가정과 학교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와 또래 간의 관계이며, 여기에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갈등 상황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배경적으로 제시되며, 또래와의 관계는 보다 직접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

I. 서론

청소년소설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는 교훈적인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의 삶’을 실감 있게 그려내는 데 있다. 이런 요구에 답하듯 현재 발표되는 있는 청소년소설의 대부분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학교와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청소년소설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공모전을 통해 신진 작가가 대거 청소년문학 내에 유입되었고, 청소년소설의 갈래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1]

청소년소설이 청소년의 현실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창작된다면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청소년소설에 형상화된 청소년 주인공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다. 개인의 삶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 혹은 공동체와의 관계로 구성되며, 개인의 정체성 역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적 관계가 곧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고, 가까운 대인관계가 개인이 느끼는 안녕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는 사실이 관계가 개별적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의 삶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해질 수 있다면 이는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소설로 형상화된 청소년의 현실을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에 의해 창작된 이들 소설이 청소년이 직면한 현

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청소년소설에 형상화된 관계의 양상

1. 한부모 가정이라는 배경

대상이 되는 10편의 소설 중 7편의 소설이 한부모 가정으로 설정되고, 재혼가정(『위저드 베이커리』) 내지는 부모가 없는(『싱커』) 것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무능력(『완득이』), 죽음(『내 이름은 망고』, 『푸른 늑대의 파수꾼』, 『아몬드』), 미혼모(『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이며, 엄마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결국 아버지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꽃달고 살아남기』)에서처럼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이 다수를 차지한다. 특징적인 것은 한부모 가정의 형성에 가장 큰 요인인 ‘이혼’ 가정폭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재한 이들 소설에서 중심인물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국에서 살거나(『내 이름은 망고』) 혼자 생활하기도 하고(『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정신 질환을 앓으며(『꽃달고 살아남기』, 『아몬드』),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푸른 늑대의 파수꾼』) 등 쉽지 않은 사회적 상황 속에 놓인다. 아버지의 부재 자체가 문제 시되어 남겨진 가족과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부재는 상황적 배경으로 나타날 뿐 그것 자체가 갈등의 이유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때 중심인물은 남겨진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아빠의 부재와 남겨진 엄마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모에게 의존하려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해 행동한다. 따라

* 본 발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6S1A6A7936584)

서 서사의 표면에 부모와의 관계와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부각되지 않으며 갈등 상황의 종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양상을 띤다.

2. 또래 관계와 힘의 논리

청소년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 청소년의 정체성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이다. 『아몬드』에서 중심인물인 윤제는 '감정표현불능증'을 앓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타자와의 관계에서 더없이 중요한 감정을 표현하고 느낄 수 없다는 인물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감정을 교류하지 못하는 윤제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던 엄마와 할멈의 존재가 사라진 이후 혼자 남겨진 윤제는 또래인 끈이로부터 위협을 받지만 결국 위기에 빠진 끈이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내던지면서 윤제의 병은 극적으로 치료된다.

『푸른 늑대의 파수꾼』에서 주인공 햇귀는 소극적인 성격 탓에 학교에서 주목 받고 있는 반장 태후에게 지속적으로 교묘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항하지 못한다. 현실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타인이 주도권을 쥔 채 유지되던 햇귀의 관계들이 극복되는 것은 타임리프에 의해서이다.

『비바, 천하최강』과 『어쨌든 벨리타인』에서 청소년이 또래와 관계 맺는 방식은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된다. 서사를 한 인물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여러 인물로 하여금 동시에 사건을 끌고 가게 하는데, 『비바, 천하최강』의 경우 '나'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각기 다른 삶의 방식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던 친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제시하여 예기치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상을 제시한다. 『어쨌든 벨리타인』에서는 각기 상이한 개성을 가진 여섯 고등학생을 각각 서술자로 내세워 그들이 또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내밀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3. 폭력적인 세계와의 불화

『꽃달고 살아남기』의 주인공 진아가 외부와의 관계에서 겪는 불화는 '다름'에서 연유한다. 시골 마을에서 업둥이로 자랐다는 사실, 인근에서 유명한 "미친년" 꽃년이가 자신의 엄마일 것이라는 사실도 그렇거니와 꽃년이와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꽃년이처럼 '헛것'(친구 신우)을 보고 대화한다는 사실 역시 진아의 남다름이다. 핑크색 캐롤 잠옷을 입은 물리교사, '물리' 역시 다르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캐롤이 그려진 핑크색 잠옷을 입고, 차를 캐롤로 도배한 교사가 내는 목소리는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사회가 자신과 물리를 "난독증 환자"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친구 인애가 겪는 성추행 사건을 계기가 절감한 진아가 다름을 당당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말을 맺는다.

『싱커』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포화상태에 놓인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안된 지하도시 '시안'에서 살고 있는 '미마'와 또래의 친구들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배경이 다를 뿐 『싱커』에서 또래 관계와 가상의 도시 '시안'이 보여주는 사회는 현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의 규율은 미마와 같은 청소년들을 사회의 외부에 있는 그들만의 게임 세상으로 숨어들게 만든다.

『꽃달고 살아남기』와 『싱커』에서 외부 세계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제시되어 청소년 주인공과 불화한다.

Ⅲ. 결론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의 밀접한 생활 영역인 가정과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소설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청소년소설이 여전히 도덕적 윤리적 책임의식에서 놓여나지 못해 비슷한 결말을 그리거나 단일한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어떤 형태의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라야 청소년에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한미화, 「최근 출간된 청소년소설의 경향」, 『창비어린이』 11권 4호, 창비어린이, 2013.
- [2] 송현주·황순택,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8권 4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6.
- [3] "한부모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2013.